

고사(枯死) 직전 알제리 수입완성차 시장현황 및 대응방안

조기창 관장
KOTRA 알제무역관

■ 주요 내용

- 알제리는 산업 다각화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 제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
- 이와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완성차에 대한 강력한 수입쿼터제를 시행함으로써 수입완성차 시장이 고사(枯死) 직전에 직면해 있으며 수입차 판매자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음.
- 알제리의 완성차에 대한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지 공장설립을 통한 공급만이 유일한 시장 확대 방안이 될 것

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
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
TEL 044-414-1076 E-MAIL emerics@kiep.go.kr
http://www.emerics.org/ http://www.kiep.go.kr/
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제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
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1 알제리 자동차¹⁾ 시장 현황

알제리의 자동차 시장은 2014년 크게 증가하였다가, 2014년 유가 하락 이후 판매량이 급감하였음.

- 알제리의 자동차 시장은 2013년 40여만 대의 자동차 판매로 정점을 찍음.
 - 2011년 ‘아랍의 봄’ 이후 2012년에 들어 알제리 정부의 공공부문 급여 인상이 대대적으로 단행되자, 알제리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증대하였으며, 이에 따라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어남.
 - 2011년 자동차 판매량은 28만대, 2012~2013년²⁾에는 연속 40만대 이상이 판매됨.
- 그러나 2014년³⁾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으로 인해 당해 연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9.5%가 감소한 34만대에 그침.
- 2015년에는 알제리 정부의 수입 쿼터제 실시 및 신차차량 수입조건 강화⁴⁾에 따라 전년 대비 31%가 증가한 22만대로 판매량이 추락
- 또한 알제리 정부는 완성차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2015년 4월, 완성차 수입 시 모든 차량에 ABS(Anti-lock Break System)⁵⁾, ECS(Electronic Stability Control)⁶⁾, 속도제한장치(Speed Limiting Device), Cruise Control⁷⁾, 정면·측면 에어백 및 기타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다가, 그다음 날 ECS와 측면 에어백 장착은 의무 항목에서 제외
 - 세관이 수입 차량 통관 시 안전장치 필수 장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체를 초래하였으며, 이는 2015년 차량판매 급감을 야기하는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
 - 같은 해 6월 말, 공공조달을 통해 도입되는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규제를 완화하였으나, 공공조달 차량은 전체 수입 차량의 1~2%에 불과하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.

1) 본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자동차는 승용차(passenger car)와 경상용차(light commercial vehicle)를 의미

2) 2013년 기준, 알제리에서는 423,000대의 신차가 팔려 시장규모가 세계 26위, 아프리카에서는 두 번째로 큰 시장이었음.

3) 2014년까지 알제리에는 자동차 생산라인이 없어 신차는 전량 수입되었으며 중고차 수입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.

4) 2015년 알제리 정부의 수입 차량에 대한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국가는 저가차량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으로 조사됨.(중국차는 수입차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. 2015년 전년 대비 62% 감소한 15,000대가 수입)

5) 편집자 주 :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으로, 자동차가 급제동할 때 바퀴가 자동으로 잠기는 시스템을 의미

6) 편집자 주 : 차체 자세제어장치로, 위급상황 발생 시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각 바퀴를 독립으로 제어해 빗길 및 빙판길에서 미끄러짐을 막는 안전장치를 의미

7) 편집자 주 : 크루즈 컨트롤. 정속 주행 장치로, 운전자가 희망하는 속도를 고정하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장치를 의미

표 1. 주요 제조사별(상위 10개사) 알제리에서의 수입 완성차 판매대수 및 점유율

(단위 : 대)

2014년				2015년			
순위	제조사	판매대수	점유율(%)	순위	제조사	판매대수	점유율(%)
1	Renault	52,059	15.4	1	Renault	49,494	18.3
2	Peugeot	41,802	12.3	2	Dacia	40,688	15.1
3	Dacia	39,741	11.7	3	Peugeot	36,323	13.5
4	Hyundai	39,333	11.6	4	Hyundai	31,306	11.6
5	Volkswagen	26,686	7.9	5	Toyota	19,627	7.3
6	Kia	25,200	7.4	6	Kia	15,099	5.6
7	Toyota	23,658	7.0	7	Volkswagen	12,455	4.6
8	Seat	17,806	5.3	8	Skoda	8,514	3.2
9	Suzuki	12,877	3.8	9	Suzuki	6,578	2.4
10	Chevrolet	11,540	3.4	10	Seat	6,551	2.4

자료 : BestSellingCarsBlog.com (BSCB)

☒ 현재 알제리 내 수입 완성차 시장 현황

- 2016년 알제리 정부는 새로운 완성차 수입쿼터제 및 수입허가증 발급 건수를 대폭 축소하여 수입차를 중심으로 국내 신차시장은 고사 단계에 직면해 있음.
 - 알제리 정부는 연초 2016년 완성차의 수입 쿼터를 전년 350,000대의 절반 수준인 152,000대로 발표하였다가 다시 83,000대로 대폭 축소
 - 이에 따라 2015년 30억 달러를 웃돌았던 자동차 수입액이 2016년에는 10억 달러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
- 대폭 축소된 수입차 쿼터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줄어들었으며, 공급량 부족과 현지 화폐인 디나르 화의 약세로 상당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
- 더불어 알제리 정부는 자동차 수입허가증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으며, 지난 5월, 80개의 신청사 중 최종적으로 40개의 자동차 딜러에게만 라이선스를 발급
- 시장전문조사기관인 BSCB는 알제리의 신차⁸⁾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65%가 급락한 10만대 안팎으로 판매될 것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음.
 - 이에 따라 많은 자동차 딜러들이 폐업하고 실직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음.
- Dacia Logan은 2015년 알제리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이었으나 2016년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%가 감소하였음.

8) 수입완성차와 현지 조립생산차를 포함

- 반면 르노자동차가 현지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SYMBOL은 올해 판매량이 전년 대비 63% 증가
 - 2016년 더욱 까다로워진 완성차에 대한 알제리 정부의 수입 규제로 인해 현재 알제리 유일의 현지 승용차 생산업체인 르노자동차의 SYMBOL이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면서 시장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

알제리 정부의 수입완성차 쿼터 배정 및 주요 제조사별 상황

표 2. 2016년 주요 제조사별 알제리 수입 완성차 쿼터 배정

(단위 : 대)

순위	제조사	배정 쿼터	전년 판매량 대비 쿼터 증감률	2015년 판매대수
1	Renault	15,000	▼ 70%	49,494
2	Dacia	15,000	▼ 63%	40,688
3	Toyota	8,500	▼ 57%	19,627
4	Peugeot	7,000	▼ 81%	36,323
5	Kia	6,800	▼ 55%	15,099
6	Volkswagen	4,600	▼ 63%	12,455
7	Hyundai	3,140	▼ 90%	31,306
8	Skoda	3,100	▼ 64%	8,514
9	Seat	2,400	▼ 63%	6,551
10	Audi	700	▼ 62%	1,860
확정 배정대수 ①		66,240		
11	Suauki	0	▼ 100%	6,578
12	Ford	0	▼ 100%	1,520
13	Citroen	n/a	n/a	6,500
14	Nissan	n/a	n/a	5,500
15	Chevrolet	n/a	n/a	3,128
16	Mitsubishi	n/a	n/a	1,973
미확정 배정대수 ②		18,760	n/a	
총 배정대수 ③ (=①+②)		85,000	총 판매대수	270,000

자료 : BestSellingCarsBlog.com (BSCB)

- 르노자동차 그룹은 Renault와 Dacia 브랜드별 전년 대비 각각 70%와 63% 감소한 15,000대를 배정받았으나 이는 배정된 쿼터 중 가장 많은 수치임. (따라서 어느 딜러도 15,000대를 초과 수입할 수 없게 됨.)
- 이와 별도로 르노자동차는 알제리 Qued Tlelat에 소재한 현지공장에서 SYMBOL 50,000대를 조립 생산하여 알제리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, 이 중 일부는 수출 예정

- BSCB는 2016년 르노자동차 그룹이 신차 수출분과 현지 생산분을 포함해 최대 55,000여 대를 알제리에서 판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이는 전년 판매 대수 9만여 대에 비해 40% 감소한 수치임.

그림 1. 르노자동차가 알제리에서 현지 생산하고 있는 승용차 SYMBOL



그림 2. 르노자동차 알제리 현지 조립공장 (알제리 Qued Tlelat 소재)



- 알제리 현지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파트너십 계약을 지연시킨 바 있는 푸조에 대해 알제리 정부는 징벌적인 쿼터를 배정
 - 푸조는 2015년 알제리에서 36,323대의 신차를 판매하였으나, 2016년에는 동 판매 대수보다 80% 이상이 삭감된 7,000대의 쿼터를 배정받음.
 - 푸조는 쿼터 배정 전 이미 9,000대를 주문하였으나, 쿼터 축소에 따라 2,000대를 취소해야 할 상황에 처함.
- 현대자동차는 주요 자동차 브랜드 중 전년 판매량이 무려 90%나 감소한 쿼터 배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됨.
 - 알제리 정부가 현대자동차에 배정한 쿼터는 2015년 한 달 판매량에 불과한 3,140대임.
- 이밖에 폭스바겐 그룹이 11,000대(▼63%), 기아 6,800대(▼55%)의 쿼터 감소율도 상위로 랭크됨. 한편 스즈키, 포드자동차는 쿼터를 전혀 배정받지 못함.

2

알제리 승용차 시장 전망과 현지 생산공장 건설 계획

- ▶ BMI Research Algeria Autos Reports Q3 2016에 의하면, 2016년에도 수입완성차의 대폭적인 쿼터량 감축으로 시장이 고사 직전까지 직면할 것으로 예상

- 알제리 승용차 시장은 2014년 이후 유가 하락으로 인한 정부의 수입규제 강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연속 2년 두 자릿수의 판매량 감소세를 보임
 - 알제리 정부는 무역수지 악화를 억제하고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음.
- 그러나 르노자동차의 알제리 현지공장에서 조립 생산되는 SYMBOL의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, 2016년 알제리의 신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⁹⁾

표 3. 알제리 승용차 판매 예상

(단위 : 만대)

구분	2014	2015 ^e	2016 ^f	2017 ^f	2018 ^f	2019 ^f	2020 ^f
판매대수	34	22	22	25	28	31	34
증감률 (%)	▼ 19.5	▼ 36.0	3.0	10.7	14.2	9.7	7.9

자료 : AC2A, BMI

e/f = BMI estimate/forecast

알제리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통한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조립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감면, 신용구입 등을 허용하고 있음.

- 아울러 그동안 외국기업이 알제리 현지 투자 시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알제리 현지인과 외국인의 지분비율 51:49 규정¹⁰⁾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외국인투자법 개정(안)이 7월 17일부로 국가평의회를 통과하였으며, 조만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시행될 예정
- 2014년 11월, 르노자동차는 알제리에서 가장 먼저 연간 승용차 25,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현지 조립공장을 건설하였음.
 - 해당 공장에서 조립 생산된 승용차 SYMBOL¹¹⁾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연간 생산 캐파를 50,000대로 확대하고, 조만간 두 번째 모델인 Dacia Sandero Stepway를 생산 공급할 예정
 - 2016년 르노자동차는 수입완성차 쿼터를 가장 많이 배정받았을 뿐 아니라 현지조립 생산 승용차 판매량까지 포함하면 알제리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것

9) 작성자 주 : BSCB에서는 2016년도 알제리 자동차 시장규모가 전년 대비 65% 축소된 10만대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, BMI는 오히려 3.0% 증가한 22만여 대로 전망. 현재 KOTRA 알제무역관에서는 BSCB의 전망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.

10) 현지인은 최소 51%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, 외국인의 지분은 49%로 제한하는 규정

11) 2014년 11월부터 가동한 알제리 현지공장에서 2016년 5월말 현재, 약 4만대가 생산 공급됨.

- 2017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조립 생산되는 차량의 본격적인 출하와 경제 회복에 따라, 자동차 판매량이 10%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특히 알제리 정부가 지난 6년간 금지해왔던 신용구입을 국산 자동차에 한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산 차의 판매가 신장할 것으로 예상
-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가 알제리에 현지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수입완성차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이고, 알제리 정부의 수입규제도 강화될 것

▶ Volkswagen과 Renault Trucks를 포함하여 현대자동차 등 다수의 자동차 제조사가 새로운 현지 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잇달아 발표

- Volkswagen은 2016년 4월, 알제리 Relizane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힘.
- Renault Trucks는 2016년 4월, 알제리 기업인 BSF Souakri와 공동으로 알제리에 연간 2,000대의 트럭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여 2017년부터 생산하기로 협약을 체결
- 아울러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지만, Peugeot Citroen이 알제리의 제2 도시인 Oran에 연간 75,000~100,000대 생산능력을 갖춘 현지 조립공장을 2019년 초까지 건설하여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면 국내 자동차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보임.
- 이탈리아의 Iveco도 알제리 현지 파트너사인 Ival 그룹과 합작을 통해 현지부품 조달비율을 17~20%로 하여 연간 1,000~1,500대 생산 규모의 현지 상용차 공장을 건설 중에 있음.
 - 이는 2016년 말 생산을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생산량을 13,000대로 확대할 예정이며, 이 중 15%는 주로 아프리카에 수출할 계획
- 또한 알제리와 이란 양국 정부는 2015년 10월, 이란 자동차업체인 Iran Lhodro ans Saipa의 알제리 현지 생산 공장(20,000대 생산 능력)을 건설하기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
- 그러나 애초 발표한 현지 생산 공장 건설계획 중 일부는 진행이 지연되고 있음.

▶ 신차 조립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공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임.

- 알제리 자동차 현지공장 가동 1호인 Renault는 기존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 ‘SYMBOL’ 이외 2번째 모델인 SUV ‘Dacia Sandero Stepway’를 연간 40,000대씩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,

2019년까지는 세 가지 모델의 차량을 75,000대까지 생산할 예정

- 알제리 자동차 현지공장 가동 2호 기업인 Mercedes-Benz는 알제리 Tiatet 소재의 공장에서 군용 차량 G-class를 생산하여 알제리 정부에 납품하고 있음.
 - Mercedes-Benz는 연간 2,000대 생산 규모의 G-Class 4×4와 6,000대 생산 규모의 Sprinter Van 조립 공장을 확충할 계획

3

우리나라 對알제리 자동차 수출 현황 및 전략과 대응방안

▶ 우리나라 對알제리 승용차 수출실적은 올해 2월 이후 거의 중단상태가 이어지다가, 알제리 정부의 완성차 수입 라이선스 발급이 완료되면서 6월부터 다시 수출이 증가

- 그러나 올해 배정 쿼터가 대폭 감소한데다가 중고차의 수입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향후 수출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
- 특히 화물차의 경우 올해 7월부터 현지 조립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출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
 - 2016년 알제리 정부가 배정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쿼터는 작년 알제리에서의 판매 대수인 46,405대¹²⁾의 20%에 불과한 9,940대¹³⁾로 정해져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

▶ 현대자동차는 지난 20년 동안 알제리에서 영업활동을 해 왔으며, 판매 증진을 위해 2016년 신형 SUV 차량인 뉴크레타(New Creta)를 출시하여 알제리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음.

- 알제차가 현지에서 차량을 생산 공급한다면 알제리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
- 2015년 알제리에서 현대자동차의 판매실적은 전년 대비 20% 감소한 31,306대에 그쳐 저조한 실적을 보임.
 - 한편 현대자동차 판매량의 62%를 차지하고 있는 액센트는 알제리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 중 하나임¹⁴⁾. 이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차종은 i10과 i20임.

12) 현대자동차 31,306대, 기아자동차 15,099대

13) 현대자동차 3,240대, 기아자동차 6,800대

14) 2015년 현대자동차의 액센트 판매량은 전년 대비 17% 감소한 19,525대였음.

- 2016년 현대자동차는 알제리 시장에 New Creta SUV를 비롯하여 Tucson과 Santa Fe SUVs 판매를 시작하였으며, 젊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i10, i20와 Elantra 모델로 출시할 예정
- 아울러 현대자동차는 2016년 7월부터 알제리 현지 공장에서 2종류의 트럭을 조립 생산하고 있으며, 연말에는 승용차 조립공장을 가동할 계획임.

현재와 같이 알제리 정부의 수입완성차에 대한 규제¹⁵⁾하에서는 현지 생산이 유일한 해결책

- 현재 프랑스, 이탈리아, 독일, 일본 및 심지어 이란까지 알제리 현지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.
- 알제리 정부는 국내 공장을 설립한 이후 일정 수준의 현지화 부품 조달비율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부품의 현지조달 계획도 같이 수립해야 할 것
 - o 알제리 산업광산부 장관 역시 수입완성차의 쿼터 축소와 관련하여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에 “알제리 현지 투자 시 재정법과 재정지침 등에서 현저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.”며 알제리는 거대한 자동차 수요가 있는 잠재시장이고,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강조하면서 알제리가 영원히 자동차 수입국으로만 남아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음. **EMERiCs**

출처

BMI, BSCB, Focus2move, Algeria Press Release, 무역협회, 무역관 보유 정보 등

15) 강력한 쿼터제 운영, 각종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, 소비자들의 신용구입 불허 등

4 부록 - 현대자동차 알제리 조립공장 현황

☒ 지난 6월 7일, 알제리 수도에서 400km 떨어진 바트나에 상용차 조립공장을 준공하여 7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감.

- 현지 상용차 대리점인 글로벌모터스에서 6,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건설하였으며, 현지인력 450명을 채용하여 중형 트럭인 「마이티」와 대형 트럭인 「트라고」를 SKD 형태로 연간 15,000대 생산
- 2020년까지 현지 인력 2,000명, 연 생산량을 22,000대로 늘리고 현지 부품 조달비율을 40%까지 올릴 예정
- 현대자동차는 올해 중 승용차 부문의 현지 조립공장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힘.

그림 5. 현대자동차 알제리 공장 소재지



그림 6. 현대자동차 알제리 현지생산 모델 (마이티, 트라고)

